조계종부산聯, '삼귀의계오계 수계대법회'

회원사찰 · 전국불자 1533명 수계
5대 회장 원허 스님 취임식 개최
보리암서 채수한 관정수로 관정
"계, 지키고 베풀기 위해 받는 것"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조계종부산연합회가 7월 24일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 5층 컨퍼런스홀에서 '제5회 삼귀의계오계 수계대법회'를 개최했다.

조계종부산연합회(회장 원허)가 7월 24일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 5층 컨퍼런스홀에서 '제5회 삼귀의계오계 수계대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수계법회에서는 혜원정사, 대광명사, 안국선원, 흥법사, 관음사 등 29개 회원사찰 및 전국의 불자 1533명이 계를 받았다.

이날 수계법회에 앞서서는 조계종부산연합회(이하 부산연합회) 제5대 회장으로 재임한 원허 스님의 취임식도 마련됐다. 취임식에는 박형준 부산시장과 안성민 부산시의회의장, 하윤수 부산시교육감 등이 참석해 축사로 인사말을 전했다.

부산연합회가 2018년부터 매년 봉행하고 있는 삼귀의계오계 수계법회는 수계의식을 통해 불자들이 청정한 마음으로 부처님의 가르침과 계율의 가치를 다시 새김으로써 신심을 높이고 자신과 주변이 함께 행복할 수 있기를 기원하는 큰 법석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수계식에서 조계종부산연합회 초대회장을 역임한 수불 스님이 전계대화상으로 등단해 수계를 증명했으며 갈마아사리는 수진 스님, 교수아사리는 지현 스님이 담당했다. 존증아사리는 심산 스님, 원허 스님, 목종 스님, 혜성 스님, 만초 스님, 원순 스님, 하림 스님, 지일 스님이 맡았다.

수계법회는 도량 결계의식을 시작으로, 태공 스님이 인례, 학산 스님의 집전, 정행 스님이 고두를 맡고, 대종 5타, 거향찬, 삼보를 예경하고 모시는 청정, 삼사 칠증사를 모시는 청사, 삼귀의계와 오계를 설명하는 개도가 진행됐다. 참회에 이어 부산연합회 사무국 스님들이 직접 남해 보리암에서 채수한 관정수로 관정의식을 진행했다. 동참대중 가운데는 말기 암환자와 가족 3대가 함께 수계를 받는 가족수계자도 있어 대중의 눈길을 끌었다.

관정의식 후 수삼귀의, 선계상, 오계선계상, 계백작증이 이어졌으며, 발원과 회향, 수계첩 전달식이 진행됐다. 이후 전계대화상 수불 스님의 법어, 갈마아사리 수진 스님과 교수아사리 지현 스님의 격려사가 진행됐으며, 부산연합회장 원허 스님의 인사말과 회향게, 사홍서원으로 법석이 마무리 됐다.

관정 이후 참여 대중을 대신해 서보석 조계종부산연합회 신도회장과 박극제, 김대곤, 이덕순 신도와 김소례 관음회 대표, 정분남 삼보회 대표, 양준동 BBS 법소리 대표, 김선조 부산시청공무원불자회 회장, 신용필 부산경찰청불자회 총무가 수계증을 받았다.

전계대화상 수불 스님은 "계는 지키기 위해 받는 것이며 동시에 더 큰 공덕과 기쁨을 위해서는 나누고 베풀기 위해 받는 것이기도 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며 "여기 계신 불자들이 널리 이웃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파하는 기쁨을 맛볼 수 있기를 바라고, 아울러 오늘 회장으로 취임한 원허 스님께 축하의 뜻을 전하며 수고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제5대 회장으로 취임한 원허 스님은 "오늘 이 자리에서 계를 받는 여러분들이 한국불교의 주인공이다.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언제 어디서나 부처님의 바른 제자로 수계 공덕을 널리 회향하는 삶을 살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대한불교종정협의회, 2022년 총회 개최



7월 26일, '새로운 도약 마련'

(사)대한불교종정협의회(회장 월인, 이하 종정협의회)가 7월 26일 경남 양산 불광사에서 총회를 개최했다. <사진>

이번 총회는 코로나로 인해 위축됐던 활동의 재개를 알리고 제14대 신임 회장에 추대된 월인 스님의 원력과 계획을 듣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월인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내실강화와 인재불사에 매진하고 화합하는 종단이 되어 줄 것"을 당부했다.

월인 스님은 "제가 9대와 10대 회장직을 맡았었는데 또 다시 14대 회장직을 맡게 되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종정협의회가 크게 위축되었다. 다시 되살리고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에 어깨가 무거워짐을 느낀다"며 "앞으로 종단협의회는 어려움은 서로 나누고 도와주며 종단 간의 화목을 다져 내실을 쌓아야 한다. 또한 한국불교의 미래를 책임질 젊은이들을 위한 군부대 포교에 원력을 쏟을 것이다. 종단협의회가 모두에게 존경받을 수 있는 단체가 될 수 있도록 회원 스님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종정협의회는 코로나 기간 동안 회원 스님들의 입적과 급격한 회원 감소로 재정난을 겪었다. 월인 스님의 회장 추대 후 총회를 계기로 회원을 다시 모집한 결과 74개 종단이 회원으로 가입해 새로운 도약을 맞았다. 종정협의회 총회는 신임 회장 인사말 후 재정확보 방안, 향후 대외사업에 대한 토론으로 이어졌다.

총회에는 회장 월인 스님(대한불교승가종), 수석부회장 청봉 스님(대원불교 조계종) 외 전체 회원 종단 74개 중 44개 종단의 종정 스님들이 참석했다. 종정협의회에서는 10월경 부산에서 14대 신임회장 취임식을 개최하고 공식적인 대외 활동을 재개할 예정이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문현노인복지관 사랑의 손길펴기



부산 남구 문수복지재단 문현노인복지관(관장 변정희)이 7월 22일 hy 한국야쿠르트(대표이사 김병진)와 함께하는 '사랑의 손길펴기 후원전달식'을 관내에서 진행했다.

사랑의 손길펴기 후원전달식은 hy 한국야쿠르트와 함께하며, 문현노인복지관 임직원이 입사와 동시에 가입하는 사회봉사단의 활동이다. 복지관 임직원은 매달 급여의 1%를 기부해 기금을 조성하고 지역사회를 위해 도움을 실천하고 있다.

문현복지관은 결식 우려가 있는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밀키트 조리식(삼계탕, 김치, 미역국, 육개장)을 제공해 여름철 건강관리에 도움을 주고자 전달식을 기획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자살예방 및 교통사고 방지 캠페인 재개

화엄승가회, 생명의 소중함 알려



화엄승가회가 7월 23일 부산 국제시장 일대에서 자살예방 및 교통사고 방지 캠페인을 개최했다.

봉사하는 스님들의 모임 화엄승가회(회장 자인)가 7월 23일 부산 국제시장 일대에서 자살예방 및 교통사고 방지 캠페인을 개최했다.

이날 캠페인 현장에는 화엄승가회 회장 자인 스님을 비롯해 부산불교교육대학 학장 범혜 스님, 총무 대각 스님 등 회원 스님들과 장준동 부산불교교육대학 부학장 등 사부대중 50여 명이 동참했다.

스님들은 가사를 수하고 발우를 들고 한 줄로 서서 비좁은 시장 거리를 천천히 걷기 시작했다. 스님들이 목탁소리에 맞춰 석가모니불 정근을 하자 시장에서 장사를 하던 상인들과 시민들은 합장을 하기도 했고 발우에 보시금을 전하기도 했다. 스님들의 뒤를 따르던 부산불교교육대학 재가 회원들은 캠페인을 위해 제작한 전단지를 시민에게 나누어주며 생명의 소중함을 전했다. 전단지에는 "작은 관심의 표현이 자살 예방의 시작이다"라는 문구와 함께 자살을 막기 위해 주변인들에게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하는 글을 담았다.

살기 좋은 부산 만들기 일환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매월 정기적으로 진행해오다 코로나19로 인해 2년 5개월 만에 다시 열렸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후원한 보시금은 화엄승가회에서 진행하는 불우이웃돕기로 회향할 예정이다.

회장 자인 스님은 "생명의 소중함을 널리 알리기 위해 겪는 수고로움은 언제나 기쁨이자 보람"이라며 "많은 사람들이 북적거리는 시장 속에서 외로움과 고통으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누군가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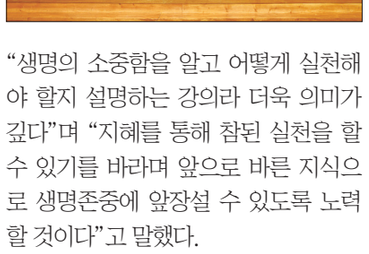
화엄승가회는 부산불교교육대학 출신 스님들이 사회봉사와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이념을 실천하기 위해 2015년 3월 창립됐다. 매년 자비연탄나눔 등 많은 봉사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화엄승가회 소속 사찰은 지장선원, 여래정사, 길상사, 자비암, 보광사 등 28개 사찰이다.

부산불교교육대학은 1982년 개교이후 1만 6000여 명의 졸업생과 1200여 명의 포교사 및 100여 명의 스님들을 배출한 전국 최초 불교대학이다. 불교의 사회적 역할을 위해 '살기 좋은 부산 만들기' 캠페인에 앞장서고 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생명나눔부산, 생명존중 강좌 성료

7월 21일, 창립 16주년 기념



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본부장 심산, 이하 부산생명나눔)가 7월 21일 영광도서 8층 문화홀에서 '숭고한 마음 생명존중 강좌'를 개최했다.

이번 강좌는 부산생명나눔 창립 16주년을 기념하고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 전환과 필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복춘희 한국장기조직기증원 前 영남지부장이 '장기 · 인체조직 기증방법(뇌사자 판정 및 기증 진행과정)'을 주제로 강의했으며, 박동범 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 사무국장이 '숭고한 마음 생명존중(장기기증의 필요성)'을 주제로 강의했다.

부산생명나눔은 강의 이후 수료식도 진행했으며, 수강자 전원에게는 수료증과 기념품을 전달했다.

본부장 심산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생명의 소중함을 알고 어떻게 실천해야 할지 설명하는 강의라 더욱 의미가 깊다"며 "지혜를 통해 참된 실천을 할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 바른 지식으로 생명존중에 앞장설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부산생명나눔실천 본부장 심산 스님과 이승표 부본부장, 조규율 부산시청 보건위생과장 등 주요 내빈과 흥법사, 대광명사, 원오사 등 각 후원 사찰의 스님과 불자, 조계종 포교사단 부산지역단 생명나눔팀 포교사와 시민 100여 명이 동참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상담환영합니다!
빙의제거와 신기운 제거는 최고 전문가(빙의 전문의)를 만나야 문제 해결이 됩니다!!

[상담대상]
◉ 빙의와 신기운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 한 개인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 빙의 기운에는 사람, 동물, 식물, 기타 여러가지 기운이 몸속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몸속에 들어오면 여러가지 신체적 장애, 정신적 이상증세를 일으킵니다.
◉ 특히 초등, 중등, 고등, 대학생이 빙의와 신기운에 노출되면 인생 전체가 망가집니다! 반드시 제거 및 벗어나게 해주어야 인생이 달라집니다! (영리하고 똑똑했던 자녀가 어느 시점 이후 갑자기 학습능력 저하, 우울증 걸리고 방콕하고 이상행동 하는 경우)
◉ 연예인, 연극인, 영화배우, 탈렌트, 가수등 마음이 여리고 순수하고 감정, 감성 중심 직업을 가지신 분들은 빙의와 신기운에 잘 접속되고 벗어나면 좋지만 그렇지 못하면 인생 전체가 불행해집니다! (예 : 만성우울증, 가위눌림, 불면증, 공황장애, 공포증, 불안장애등에는 반드시 빙의가 접속되어 있습니다!)
◉ 다 그런건 아니지만 직업상 시신을 자주 접하는 사건 현장 담당 경찰업무 하신분, 119대원, 소방업무 종사자, 장례식장 종사자 등 심약하신 분들은 빙의에 접속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 : 가위눌림, 악몽자주꿈, 불면증, 망자가 꿈에 자주 나타나는 경우, 외상후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경우, 몸이 무겁고, 만성 피로감등)
◉ 이상행동, 어느 시점 이후 부터 과거와 매우 다른 행동, 습관이 있는 경우, 병원에 오래 다녀도 낫지 않은 경우등
◉ 희귀병 (병원에서 낫지 않은), 조현병, 분노조절장애는 100% 빙의로 인한 것입니다! (감정기복 매우 심함, 묻지마 폭행, 과격한 행동 등)
◉ 직업상 묘이장, 파묘작업 많이 하시는 분들 건강이상, 정신이상 증세, 가정불화(의처증, 의부증 심함), 잦은 우환, 이상행동 하는 경우
◉ 여러번 천도재, 굿해도 효과 못보신 분

◉ 빙의전문의로서 정직과 신뢰와 꾸준한 사후 관리로 빙의 환자와 함께 문제 해결로 집중해 갑니다!
◉ 원격치유가능 (환자직접 오지않아도 됨) ⇨ 최고 전문가만 가능
◉ 문제해결, 증상해결 중심으로 상담 ◉ 전생빙의치유, 마스터과정수료
◉ 20여년 빙의, 신기운 천도 경력 노하우 갖춤
◉ 증세가 오래 되었거나 심한 경우는 일정기간 간격을 두고 천도정성과 사후 관리를 꾸준히 받으면서 가야 완전히 벗어날 수 있습니다! (원격사후관리 가능)

※ 전화 · 대면상담은 무료입니다!

제주불교금강선원 (빙의천도, 신기운천도 전문 상담원) ☎ 064-746-0789 오시는길 : 제주도 제주시 삼무로 47 3층

www.holytec.com
오리지널 유골 보석
영옥(靈玉)
· 납골의 변질과 혐오감이 없습니다.
· 깨끗한 모습으로 영구적입니다.
20년을 유골성형 한 길로 고인 고유의 색상을 발현시켰습니다.
▣ 1기 생성 소요시간 60~90분 소요 ▣
SINCE 2002
오리지널 유골보석 전문업체
주식회사 본 향
NAVER 영옥 검색
상담 : 010-5235-2677